

보완점 찾은 페퍼저축은행, 이제는 ‘100%’ 완성한다



일본 가와사키 전지훈련 마무리 세 차례 연습경기 통해 팀 진단 짧은 휴식 후 광주서 훈련 재개 “훈련 필요한 부분 명확히 나와”

창단 후 두 번째 해외 전지훈련을 떠났던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확실한 수확과 함께 귀국했다. 장소연 감독은 세 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진단한 점들을 토대로 KOVO컵에는 완벽한 전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일본 가나가와 가와사키 타마가와 아레나에서 자매 구단인 NEC 레드 로켓츠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동일과 휴식일을 제외하면 훈련일은 사흘로 페퍼저축은행은 NEC, 가에쓰대 등과 연습경기를 치르며 점검에 나섰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9일 오후 2세트씩 총 4세트로 치른 첫 연습경기 3파전에서 NEC를 상대로 0-2(20-25, 24-26)로 석패한 뒤 가에쓰대와는 1-1(21-25, 25-23)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이어 20일 오후 4세트로 치른 연습경기에서는 NEC에게 1-3(17-25, 18-25, 25-21, 14-25)으로 고배를 마셨고, 22일 오전 3세트로 치른 마지막 연습경기에서는 NEC에게 1-2(8-25, 25-21, 18-25)로 석패했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선수단이 지난 22일 오전 일본 가나가와 가와사키 타마가와 아레나에서 열린 NEC 레드 로켓츠와 연습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한 뒤 기뻐하고 있다.

장소연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세 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새 시즌 준비에 몰두했다. 트윈 타워를 구축해야 하는 장 위와 바르바라 자비치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도록 유도했고 이들과 호흡을 맞출 박사랑과 이원정, 박수빈의 세터진을 고루 시험했다.

특히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 2연패를 차지한 NEC는 좋은 연습 상대가 됐다. 간판스타 코가 사리나가 최근 은퇴를 선언했고 2024 파리 올림픽에 소집됐던 야마다 니치카와 와다 유키코가 휴가를 받았음에도 일본 배구 특유의 조직력과 견고함을 선보였다.

또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020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시마무라 하루요와 2022-2023시즌 베스트 6(세터) 사와다 유카, 2023-2024시즌 베스트 6(세터) 츠카다 시오리 등 주축 자원들이 모두 출전하며 서로 공수에서 보완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장소연 감독은 세 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좋은 수확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한 달 남짓 남은 KOVO컵까지 훈련을 통해 보완점을 메우고, 첫 공식 경기에서 사령탑으로서 연착륙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전지훈련이나 연습경기를 마치면 항상 얻어 가는 것이 있다. 그런 부분을 토대로 어떤

훈련을 해야겠다는 것이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수확을 갖고 간다”며 “기본기에서 비롯되는 조직력은 일본 배구의 색깔이고 배울 점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나온 것이 최대의 수확이다”고 밝혔다.

아시아쿼터 1순위인 장 위(중국)와 외국인 선수 1순위인 바르바라 자비치(크로아티아), 새로 영입한 한다혜와 이원정, 이에림, 임주는 등 선수들의 활용법을 찾는 것도 수확이다. 박사랑과 이원정, 박수빈으로 이어지는 세터진도 각각의 개성을 뽐냈다.

장 감독은 “연습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활용법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며 “세터 세명은 각각의 개성을 갖고 있다. 본인들이 가진 장점을 발휘한 것 같고 리시브가 잘됐을 때 어떤 선수를 살리는지, 어떤 선수와 호흡이 좋은 지도 잘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위는 적응을 잘했고, 충분히 팀에 녹아들었다. 자비치는 합류한 지 얼마 안 돼 선수들과 호흡을 맞출 시간이 부족했다”며 “귀국해서 보완하겠다. 자비치의 컨디션도 올려야 하고 세터들과 호흡도 더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KOVO컵에 나서는 페퍼저축은행은 100% 전력을 가동할 전망이다. 올해 KOVO컵은 지난해보다 2개월 늦게 열려 대회 2주 후엔 V-리그가 개막하고, 아시아쿼터와 외국인 선수가 모두 출전 가능하기 때문에 최정에 시험 무대로 삼을 수 있다.

장 감독은 “배구는 팀 스포츠기 때문에 개인 실력도 좋아야 하지만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선수들에게 많이 얘기했고, 주장인 박정아 선수와도 소통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자고 했다”며 “경기력적으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데이터가 나왔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구상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2일 일본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뒤 23일 오전 광주 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회복 훈련을 갖고 짧은 휴식에 돌입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6일 팀 훈련을 재개한 뒤 30일에는 2023-2024시즌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픈 트레이닝을 개최한다.

일본 가와사키=글 사진 한규빈 기자

‘대권 도전 위기’ KIA, 네일마저 이탈

강습 타구에 턱관절 골절... 수술 최지민 우측 내복사근 미세 손상

호랑이 군단이 올 시즌 우승 도전에 가장 큰 암초를 만났다. 이미 이의리가 시즌 아웃됐고, 윤영철이 전역에서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제임스 네일(사진)까지 부상을 입으면서 선발진 절반 이상이 이탈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KIA타이거즈는 네일이 지난 24일 경남 창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진을 실시한 결과 턱관절 골절 소견을 받아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턱관절 고정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네일은 지난 24일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4차전 6회말 선두 타자 맷 데이비슨의 강습 타구에 얼굴을 맞았다.

타구에 얼굴을 맞은 직후 수비를 이어가려 했던 네일은 강하게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았고 이내 라커룸으로 뛰쳐나갔다. 네일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좌도 규가 급히 투입됐고 강습 타구를 때린 데이비슨도 충격에 휩싸여 대주자 최정원으로 교체됐다.

불의의 사고였지만 KIA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았다. 이미 이의리가 좌측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재건술 및 뼈조각 제거술을 받으며 시즌을 조기 마감한



상황에서 네일 역시 복귀 시점을 정할 수 없어 사실상 정규 시즌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KIA는 지난 24일까지 71승 2무 47패(승률 0.602)를 기록하며 2위 삼성라이온즈와 6.5경기 차 선두를 달리며 우승도 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었다. 하지만 다승 공동 1위, 평균자책점 2위, 승률 2위를 달리고 있는 명실상부한 에이스가 이탈하면서 페넌트 레이스에 활용할 대체 외국인 선수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네일과 함께 최지민 역시 전력에서 이탈했다. 최지민은 지난 23일 창원 NC전을 앞두고 옆구리 통증을 호소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검진 결과 우측 내복사근 미세손상 소견을 받아 2주 후 재검을 진행 후 재활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규빈 기자

광주체육중, 추계 초·중·고 유도연맹전 메달 4개 수확

박원탁·임동화 금빛 메치기

광주체육중 유도부가 제52회 추계 전국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겸 국제 유·청소년 파견 선발대회에서 메달 4개를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체육중 유도부는 지난 19-23일 경북 문경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송정동초,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초등 저학년 야구 우승

송정동초등학교가 제4회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초등학교 저학년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송정동초는 지난 23일 광주 첨단야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결승에서 화정초를 14-7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 21일부터 광주지역 7개 초등학교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송정동초는 첫 경기 상대인 수창초를 10-3으로 이긴 뒤 준결승서 서림초를 6-3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송정동초는 화정초와의 결승에서 타격전을 펼친 끝에 7점 차 승리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최우수선수상에는 송정동초 김도환이 선정됐고, 타격상은 9타수 7안타(타율

박원탁(2년)이 대회 첫날 남중부 -55kg급에 출전해 1회전부터 결승까지 화려한 기술로 상대 선수를 압도했다. 준결승에서 해동중 이준혁을 상대로 외길업어치기 절반 누르기 한판승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박원탁은 결승에서 통용중양중 정태웅을 누르기 한판승으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임동화(1년)는 남중부 -81kg급 결승에서 성남중 최윤범을 업어치기 되치기 절

반 발다리 한판승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백산(2년)은 남중부 -45kg급에서는 메달을 획득했다. 강수빈(3년)은 남중부 -66kg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준재 광주체육중 교장은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최동환 기자



송정동초 야구부 선수들이 지난 23일 광주 첨단야구장에서 열린 제4회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초등학교 저학년 야구대회 결승전서 화정초를 14-7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0.778)를 친 송정동초 정우민이 받았다. 송정동초 김지완은 우수투수상을 차지했다.

화정초의 송하담과 김주원은 각각 최다

도루상(6개)과 최다타점상(7타점)을 수상했다. 송정동초 정재열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다.

최동환 기자